

1894~1910년 사이 근대적 공간으로서의 신문이 생산한 연행성과 감각들

—양세라, 『근대계몽기 신문 텍스트의 연행성 연구』 (소명출판, 2020)

문경연*

국문초록

『근대계몽기 신문 텍스트의 연행성 연구』는 1894년 이후부터 1910년 까지 근대계몽기 신문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대한민보>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신문의 공간적 실천 전략을 연구했다. 저자는 신문을 사회적 공간으로 상정하고 신문 텍스트의 소통방식과 소통의 상호작용을 고찰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지시하는 신문의 '연행 텍스트'는 일단 당대 연희 마당과 연극장, 연극개량 등을 주제로 한 기사들이다. 여기에 신문에 실린 기사 장르로서의 논설, 시사평론, 독자투고, 잡보, 광고, 소설 등이 연행적인(performative) 방식의 글쓰기를 활용할 때 이것들을 '연행 텍스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저자는 핵심 키워드인 '연행성'을 서술함에 있어 전근대 사회의 전통연희적 속성을 호출하지만, 동시에 연극이 생성하는 역동성과 상황으로서의 예술 과정에 주목하는 현대 예술의 '연행성' 개념을 교차·적용한다. 이 연구서가 갖는 가장 큰 미덕은 근대계몽기에 여전히 잔류하고 있었던 전근대적 연희와 당대 근대 신문 텍스트에서 '연행성'이라는 극적 소통구조를 포착하고 이를 연속적인 시각에서 통찰한 점이다. 이 연구의 성과는 근대계몽기 신문에 실린 연희와 연극(장)담론에서 타자화 되었던 당대 연행 주제와 연희 환경의 수행적 시각 방식을 복원한 것에 있다고 본다.

www.kci.go.kr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강의교수

1. 연극의 연행성, 신문 텍스트의 연행성

『근대계몽기 신문 텍스트의 연행성 연구』는 저자의 박사논문¹⁾을 수정·보완하여 발간한 연구서이다. 10년 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출간한 연구서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연구가 시사하는 새로움은 덜하다. 그러나 100년 전 신문 미디어를 독해하는 과정의 지난함과 근대계몽기라는 시기의 역사적 무게감을 고려하자면, 이 책은 지속적으로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대 계몽기 매체 연구들에 소중한 선행연구가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은 1894년 이후부터 1910년 까지 근대계몽기 신문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대한민보>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신문 텍스트를 1차 자료 삼아 시작된 이 연구에서 ‘연희’와 ‘연행성’은 연구자가 당시 신문 미디어에서 발견한 근대계몽기의 동력이다. 저자는 “연희와 연행성이 실제로는 신문이라는 근대적인 공간에서 인식 또는 경험의 주체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지시하는 신문의 ‘연행 텍스트’는 일단 당대 연희 마당과 연극장, 연극개량 등을 주제로 한 기사들이다. 여기에 신문에 실린 기사 장르로서의 논설, 시사평론, 독자투고, 잡보, 광고, 소설 등이 연행적인(performative) 방식의 글쓰기를 실천할 때 이것들을 ‘연행 텍스트’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저자는 핵심 키워드인 ‘연행성’을 서술함에 있어 전근대 사회의 전통연희적 속성을 호출하지만, 동시에 연극이 생성하는 역동성과 상황으로서의 예술 과정에 주목하는 현대 예술의 ‘연행성’ 개념을 교차적용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연행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당시 연희의 장에 현존하는 작품 자체를 포함해서 배우(연행자), 관객(구경꾼)의 신체를 문자로 재현하는 텍스트들이다. 연희의 구경꾼은 기록자(서술자)가 되어 연희 현장을 언어로 재현할 수 있다. 또 하나는 활자화된 신문의 글이 연행

1) 양세라, 『근대계몽기 신문텍스트의 연행성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2010.

적인 방식으로 구성·서술되면서 의미를 생성할 때, 이것 역시 ‘연행 텍스트’가 된다. 저자는 이런 신문 기사 자체를 종종 ‘연행되는 신체’, ‘신문의 조각난 신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연행 텍스트는 언어로 재현될 뿐만 아니라 삽화 등을 통해 시각화되기도 하는데, 텍스트 내부의 연희 관객이나 구경꾼이 서술적 화자의 역할을 할 때 연행 텍스트가 된다.

이 책은 결론을 제외하고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극마당으로 재현된 근대계몽기 신문 공간”과 “제2장 연희마당, 근대계몽기 공론장의 실체를 구성하는 지각 공간”에는 근대계몽기 신문 텍스트 전체를 조망하는 연구자의 시각과 문제의식이 제시되었다. “제3장 근대계몽기 신문의 의사소통 모델과 연행 텍스트의 배치”, “제4장 잡보(雜報)로 연행된 ‘시사평론’ -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제5장 연극소설”에는 논설, 극담류 한문논설, 시사평론, 독자투고(독자응모), 잡보, 광고, 소설 등이 실린 신문의 지면을 분할하여 그 대상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목차에서 거론된 ‘극마당’, ‘연희마당’은 동일한 대상의 다른 표현인데 실제 연희가 벌어지는 현실적인 장소와, 그 장소를 신문이 활자로 재현하는 지면 공간 및 소통 효과라는 두 가지 의미를 맥락에 따라 혼용하여 쓰고 있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일관된 연구시각과 방법론을 적용해서 분석함으로써 저자의 학문적 주장, 즉 근대계몽기 신문이 활용한 ‘연행성’을 도출해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신체화, 김교제, 이인직, 이해조의 연행 텍스트와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추기는 상당히 흥미롭다.

저자는 “공동체의 영역이 사라지거나 변화하는 시대에 신문이라는 공간에서 전근대사회에서 경험한 공공의 현상이 재현되고 연희와 극장의 소통방식이 기술되는 신문텍스트가 생산되는 것”(48)에 주목했다고 한다. 근대계몽기 신문의 연극담론에 대한 일련의 선행연구들이, ‘연극개량담론’으로 제기된 연극성을 ‘근대상’이라는 계몽적 시대정신의 수행으로 보았다면 이 책은 ‘연행성’이라는 구술 문화와 전통 연희의 속성을 재발굴

하여 연구의 표제어로 내걸었다.

2.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근대계몽기 신문 읽기

“연행성은 해당 사회문화의 공동체가 향유한 연극 관습 안에서 경험된 지각 형식이다. 문자 매체의 전달력이 한정적이었던 시대에 연행과 연행자의 몸으로 사회공동체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익숙한 방식은 신문 매체가 참조하고 인용한 언어형식이 되는 조건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언어 형식은 공동체의 신념과 가치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연행자의 신체와 몸짓을 기호로 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다. 따라서 이후 근대계몽기 신문에 존재하는 서사 텍스트의 연행성을 제도적이고 관습적인 공공성과 상호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 신문의 지각구조를 구성한 과정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26-27 sic)

저자는 “근대계몽기 ‘연희(演戲)’는 당대 인간 삶의 알레고리나 이미지가 아니라 당대 인간 삶의 그 자체로 혹은 재현의 행위 모델”(28)이었다고 서술한다. ‘연희가 삶 그 자체이며 동시에 재현의 행위모델이라는 이중적이고 동시적인 서술이 이 책의 키워드인 ‘연희성’으로 직결되기에는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지만 일단 그대로 옮겨본다. 이 책은 근대계몽기 당시 연희의 현장성, 쌍방향성, 상황성 등을 집약하는 특징으로 ‘연희성’을 꼽은 후, 이것이 근대계몽기 신문 텍스트의 지각 구조임을 책 전반에 걸쳐 밝혀내고 역설(力說)했다. 근대계몽기 신문의 독자가 여전히 이야기를 구술적으로 소비, 향유하는 것에 익숙한 독자였다는 점, 그래서 신문이 소통 형식을 모색할 때 대화체 텍스트에서와 같은 연행적 형식을 반복적·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에 착목한 본 연구서의 시각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근대계몽기 신문에 실렸던 논설이나 단행서사 텍스트만 보아도 전통극과 유사한 발화방식이나 연극적 담화형식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근대계몽기 신문에서 당대 연회현장과 연회 행위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텍스트를 구성하는 현상이, “경험 감각으로서 연회의 지각 방식에 의해 신문을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전략”이었다고 주장한다. 근대계몽기의 신문을 하나의 공간으로 보려는 저자의 시각은 자연스럽다. 활자가 배치된 지면 자체가 하나의 공간이자 담론이 발화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저자는 이 신문 공간이 근대적 지식과 정보를 활자 배열한 공간이면서 ‘연행성’이 구조화되고 배치되는 공간으로 규정한다. 신문이 한 편의 연회를 풍속과 정보로 재현할 때, 연행 텍스트는 신체를 통해 연행을 수행하는 인물처럼 당대인들의 경험 감각을 주조해내는 연행성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진술에서 전략은 누구에 의해 기획된 것인지, 신문 매체의 전략인지 아니면 기자(記者)나 필진으로 상정되는 근대계몽기의 엘리트 지식인인지 알 수 없다. 저자가 주어의 자리에 놓이는 주체적 존재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직관적 파악이 어렵지만, 이후 여러 서술들 안에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설’, ‘시사평론’, ‘독자투고’, ‘잡보’, ‘연극소설’ 등과 같은 신문 텍스트들은 산대극, 판소리, 타령 등과 같은 언어적 서술과 음악적 소리를 통해 기술(記述)됨으로써, 연회 감각을 재현했다. 이 때 논설은 “연행자의 신체 감각 특히 음성으로 전하는 연행 행위와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매개하는”(89) 연회의 장소가 되었다. ‘논설’ 혹은 ‘시사평론’ 텍스트에서 ‘산대극’이나 ‘판소리’의 연행성을 매개로 논설 글쓰기를 수행할 때, 연행자(서술적 화자)와 관람자(신문 독자)는 현장에서 소통, 발화하는 것과 같은 상호대화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특히 여러 기사들을 쓰며 신문이라는 공론장의 헤게모니를 구성하는 기자(신문사 필진)들은 연행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생산함으로 계몽담론의 확산을 도모하였을 것이다. 저자는 언어학자 존 오스틴(John Austine)이 “언어가 대상을 묘사하고 호명할 뿐 아니라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실행”시킨다고 말한 언어의 수행적 실천개념과 연행성을 결합시켰다. 신문텍스트의 언어와 구조가 연행성을

매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연행성을 ‘전이현상과 ‘영향력’이라는 수행적 기능으로 연장할 때, “사회적 리얼리티로서의 공동체가 연행 현장에서 형성되는 연행성”(139)을 생성하게 되었을 것이다.

근대 계몽기의 대중들은 문자로 기록하지 않는 비공식적 의사소통방식, 노동요, 타령, 굿, 가면극 등 연행적 지각구조 안에서 소통하는 세계에 살고 있었다. “연극 양식을 규범적으로 이해하고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문”(337)이야말로, 행동의 과정 안에서 의미가 스스로 생성된다는 상호소통적인 연행성 개념으로 근대계몽기 연극텍스트를 분석하게 된 필연적인 조건이었을 것이다. 서구의 근대극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연극개량 논설류의 텍스트조차도 대중 독자와 소통하기 위한 공공적 글쓰기에서는 문답법, 대화체, 타령조의 감탄사, 판소리체 화법 등과 같은 전근대적인 방식의 육체성과 청각성을 도구적으로 활용했다. 근대계몽기 내내 이렇게 신문 텍스트를 매개로 연행성이 구성되고 재현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계몽기 신문 텍스트가 지닌 연행성이야말로 이 시기 신문에 반영된 시대 정서와 지각 구조라는 저자의 연구 결과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3. 전근대를 근대인의 눈으로, 근대를 전근대의 눈으로 바라볼 때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저자는 근대계몽기 신문에 게재된 텍스트의 연행성을 고찰하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텍스트들을 근대 희곡의 전근대적 형태로 배열하려는 자신의 무의식과 고투하곤 했다는 고백을 한다(60). 그래서 의식적으로 텍스트를 고정된 실체나 문학적 개념의 희곡만으로 한정하지 않으려 했으며, 연극성의 실천적 형식으로 생산된 텍스트들을 설명할 수 있

는 근거를 찾으려 했다고 한다. 본 연구서를 읽는 과정에서 뒤늦게 저자와 동일한 무의식적 고투에 직면한 필자는, 저자의 문장 안에서 머뭇거리거나 헤매는 시간이 많았음을 말하고자 한다. 이는 필자의 학문적 깊이가 얕은 탓이 가장 크겠지만, 이 책이 규정하고 있는 ‘연행성’이 전근대의 구술 문화와 현대 연극의 퍼포먼스 이론 사이에서 양 발을 하나씩 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두 발 사이의 다양한 격차에 대한 설명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 책에서 연행성은 근대 계몽기 독자 대중들의 경험과 지각방식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도출해 낸 소통형식이자 실천인가. 아니면 근대 계몽기의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연행성을 근거로 기자의 계몽적 욕망과 수행적 결과를 분석해 냈고 이것을 신문 텍스트의 지각구조라고 규정한 것인가.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연행성이 먼저일까 아니면 지각구조가 먼저일까. 저자는 신문 텍스트에 재현된 연행성이 소통 도구가 되는 방식에, 당대 사람들의 지각 구조가 전제되어 있다고 말한다. “근대계몽기 신문 텍스트의 지각구조를 보여주는 연행성”이다. 저자는 신문 텍스트의 연행성과 당대인들의 경험 감각이 맺는 관계를 단선적인 인과성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 그 입장에는 필자도 동의한다. 문제는 논리적 실증을 통해 도출해야 할 ‘당대인들의 지각 구조가 여러 군데 서술의 과정에서는 연행성을 설명하기 위한 선행적 전제 서술되고 있어서, 순환론의 오류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한편, 근대 사회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인들의 몸은 단일한 국가 담론과 권력의 틀 안에서 획일화되어 관리된다. 몸이야말로 정치적이고 문화적 효과와 함께 구성되는 역사적 대상이다. 굳이 푸코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근대인의 몸은 더 이상 본질적인 것도 자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이 자명해졌다. 그래서인지 “근대 계몽기 신문 텍스트의 연행성이 당대인들의 지각 감각을 보여 준다”는 일반론적 서술은 이 시기의 연행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마치 규명할 필요도 없는 전제 조항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개인의 몸과 감각을 ‘당대인의 지각 감각’이라는 일반화된 진술 안에서 획일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본적으로 능동적이며 주관과 객관의 소통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연희의 연행성을 서술하는 부분에서조차 당대인들의 신체가 개인의 물적 존재기반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 일까. 이 책에서 ‘현실적 삶’·‘연희(공연)’·‘현실/연희의 재현으로서의 신문텍스트’라는 세 개 항, 또는 ‘필자(신문 기자)’·‘연행자(배우)’·‘당대 독자’라는 세 개 항이 통칭되거나 구분되지 않은 채 서술되고 있어서일 수도 있겠다. 1900년을 전후한 대한제국 시기 조선 대중들의 개별적인 신체와 감각의 유의미성이 강조되지 않았고 근대적 지각 방식이라는 일반적 진술 안에서 연행 본연의 의미, 물적 현존으로서의 신체가 갖는 능동성과 활력을 부각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저자가 이 책의 결론에서 “근대를 지향하는 신문의 필진과 구한말 대한제국을 구성하는 근대인의 현실적인 소통관계를 연행성을 매개로 한 글쓰기의 관계 안에서 파악해 보았다”고 할 때 그 시기는 근대 계몽기, 즉 전근대와 근대의 경계에 놓인 시대이다. 저자가 인식하는 이 시대는 근대를 지향하는 전근대의 사회일까 아니면, 전근대의 흔적을 떨쳐내지 못한 근대일까. 문제적 시기를 다루면서 그 시대적 지향점을 적시하지 않은 채 연행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행자의 공동체와 전통에 무게중심이 있는 연행성인지 프로시니엄 무대를 거부하는 인터랙티브 예술의 지각방식과 현상학적 지각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한 대목도 있다. 리차드 셰크너와 데이비즈 레빈, 에리카 피셔 리히테와 허버트 블라우가 인용될 때 기생, 여성, 아이, 무당굿의 참가자, 가면극의 구경꾼 등은 어떤 ‘근대적 지각주체’로 해석해야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또 이 책은 연행성을 매개로 한 신문 텍스트의 글쓰기 전략을 연구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신문의 필진과, 연희 현장의 구경꾼이자 관객이며 텍스트 속 서술자가, 구한말 대한제국의 근대인 사이에서 생산한 현실적 소통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여기서 대한제국의 근대인은 누구인가. 대한제

국의 근대인은 당대 필진과 독자 대중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인가 아니면 신문의 필자와 독자로 구분되는가. 이는 연행성을 논할 때, 작품(공연물)·창작자(작가)·연행자·감상하는 지각자의 개별성과 중첩성에 관련되어 있는데, 그 구분이 간과되었다. 작품은 즉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지각자(감상자, 구경꾼)와 관계를 맺을 때 존재한다. 창작자(작가)는 연희(연극)에 개입한 참여자이면서 스스로 능동적인 지각자이기도 하다. 연행자는 작가와 동일한 존재일 수도 있고 공연의 과정에서 연희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는 창작자가 되기도 한다. 관객은 연희의 감상자이면서 예술대상의 지각자이고 작품의 소통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이기도 하다. 이것은 연희의 물질성, 형식성, 지각 구조, 실연(實演)의 우연성과 상황성 등으로 설명되는 연행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신문 텍스트의 논설류 글을 ‘논설’과 ‘시사평론’ 류의 글쓰기로 구분했다. 그리고 논설은 연행성을 ‘인식의 대상으로 삼지만 시사평론은 연행성을 ‘실천’하는 글이라고 성격을 구분한 바 있다. 그 중 시사평론은 ‘필자 중심이 아니라 ‘독자들이 체험한 방식, 그 독자 체험을 매개로 구성된 텍스트라고 한다. 독자 체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는 결국 독자, 연희자, 연행자, 관객에 의해 기술되는 공간으로 전유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은 신문의 의사소통 구조, 텍스트가 재현하는 연행 공간 속의 연희 주체와 객체를 서술한 부분이다. “신문은 연희를 수행하는 연희자를 재현하기도 하지만, 연희자는 텍스트의 주체로 서술자 혹은 발화자로 서사 혹은 서술로 연행을 주도하는 텍스트의 발화자로 자주 확인된다. 예를 들어 자주 등장하는 ‘금방울 같은 무당, 『골계 절영신화』의 말뚝이, 『병인간첩회록』의 병신류형 인간, 인형극의 흥동지, <담바고타령>을 노래하는 연행자들은 연행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신체다. 이 신체는 신문 텍스트 가운데 연희를 수행하는 연행자의 목소리, 가창, 연주, 춤사위 등을 재현한다. 그리고 신문 텍스트에서 서술적 화자의 언어 형식, 반복적이거나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는 텍스트의 통사 구조 등으로, 연희

감각을 구성하는 주제 혹은 객체로 텍스트에 존재한다.”(16)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신체 담론과 연행성에 대한 시각은 기계론적 인식틀로 읽히기도 한다. 연행자가 유형화되고 대상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교제가 생산한 텍스트에 주목한 제4장은 ‘단편적 연행 텍스트’와 ‘연행적 서사 텍스트’를 구분했다. 김교제로 대표되는 자, “기자(記者)라는 이름으로 계몽 담론을 생산한 이들은 텍스트에서 이성적이며 반성적이고 객관적인 관찰자이자 기록자로 텍스트에 존재하였다.” 신문기자는 “연행텍스트를 생산하면서 연행 현장에 대한 관찰자이자 근대적 주체로서 연회를 수용한 극작술 연구자”(341)였다. 이것은 신문텍스트 생산에 유기적으로 참여한 연행 관찰자로서의 신문기자 역할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신문기자’, ‘기록자’, ‘연행의 지각 구조 구성자’라는 세 가지 역할은 이 시기의 특징이라기 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록하는 동시에 사실을 전달하고 그 기사가 독자에게 현장의 감각을 전달하게끔 하는 기자의 오래된 직분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대계몽기 신문기자의 독보적인 역할 수행은 다시 고민해 보아야한다.

저자에 따르면 연극소설 『구마검』은 연행성과 소설적 글쓰기가 이중적으로 결합한 텍스트이다. 관찰자가 연행성을 재현하던 이전의 텍스트들과는 다르게, 이 책의 저자는 <구마검>이 무당굿을 연극으로 이해했고, 연행자와 관찰자를 공존(309)하게 했다고 평가한다. 굿의 연행과정과 행위로 재현된 이 작품이, ‘문학 이전 시대의 신체인 무당의 연행적 발화를 통해 제의적 관습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소통과 연행성을 재현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마검>을 근대계몽기 연회 양식인 굿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던 계몽기 현실에 대한 자기 반영적 표현 형식으로 본 저자의 해석은 명쾌하다. 저자는 연극소설 텍스트를 사유의 대상이라기보다 당대인들이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감각과 지각 방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해석하였다.

4. 연행성과 계몽성이 만나는 신문 공간

저자는 전근대 연희(마당)와 근대의 연극(장)이 공존했던 근대 계몽기에, 연행성이라는 균질하고 연속적인 시각으로 신문 텍스트를 통찰했다. 이 책은 공유된 몸과 공유된 공간을 통해 관객과 연행자(배우, 행위자)가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출할 가능성을 얻는다는 에리카 피셔(Erika Fisher-Lichte)의 진술을 기반으로 했다. 에리카 피셔 리히테에 따르면 연행성은 행동의 물리적인 면인 공간성, 육체성, 소리성을 통해 즉각적으로 교감하고, 이 과정에서 훨씬 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가 초래된다고 한다. 이 이론은 대한제국의 계몽담론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자언어보다 사회적으로 경험이 가능한 공간 감각인 연행을 통할 때 보다 기능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이 연구서가 여러 근대 계몽기 매체에 실린 연극담론을 고찰한 선행연구와 차별되는 지점은, 신문 텍스트가 가진 연행성을 부각시킨 것 즉 신문이 당시 사회의 고유한 신체와 지각방식을 재현하고 구성했던 전략적 배치방식에 연행성의 창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당대 신문의 계몽담론이 구성한 인식 틀보다 연극적 텍스트의 소통 방식과 대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몸, 신체, 감각, 연희, 수행, 연행성 등의 개념이 국민, 민족, 계몽, 인식, 근대성 등의 기호보다 자주 발화된다.

학위논문의 특성상 여러 장에 걸쳐 저자가 연구사적으로 규명하고 싶은 연구목표와 연구결과가 차이와 반복의 기술을 통해 증명되고, 결론에서 논의가 수렴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근대계몽기 신문에 배치된 신문 텍스트(기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매체가 생산하는 소통구조와 연행성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기 때문에, 독자는 반복적 진술과 유사한 소결론을 자주 포착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저서가 거둔 성과

는 다음과 같은 연행성의 규명에 있다. 저자는 근대 계몽기 신문이 당대 사회의 행동규범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자 방법으로 연극을 이해하고 응용한 연행성의 공간이었다고 본다. 공론장의 역할을 했던 신문이 공공연히 연극을 사건으로 배치하고 연극성을 언술 형식으로 활용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이 책의 성과는 근대계몽기 신문에 실린 연희와 연극(장)담론에서 타자화되었던 당대 연행주체와 연희 환경의 수행적 지각 방식의 가치를 복원한 것에 있을 것이다.